



남원농협, 조합원 자녀 38명에 장학금 지원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임원, 조합원, 조합원 자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자녀 38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원농협은 우리나라에선 복지가 아직 생소한 시절인 1987년부터 농민의 지위 향상 및 가계를 돕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 지난해까지 2,477명에게 13억6,7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대학생 38명에게 100만원씩 3,800만원을 전달했다.

박기열 조합장은 “어려운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향동, 시 개최 축제 홍보 나서

남원시 죽향동(동장 임집숙)은 오는 10월 남원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홍보 문구 “10월, 축제가 피어나다 남원”을 활용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원에서는 △2025 남원국제드레제전 with 로트(10.16.~10.19.) △제33회 흥부제(10.17.~10.19.) △2025 남원국가유신야행(10.16.~10.19.) 등 3개의 대형 축제가 동시에 열린다.

이에 임집숙 죽향동장은 행사의 특성을 살려 ‘축제가 피어나다’라는 통합적 브랜드를 기획하고,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확산에 나서며, 자체적으로 포스터와 다양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주민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노암동, 북한이탈주민 이불·양산 지원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차미화)는 환절기에 대비해 관내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이불과 양산을 지원했다. 이번 물품은 낮과 밤의 기온 차로 인해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한 이탈 주민은 “남한의 다른 거주지에서는 이렇게 배려받기 어려웠는데, 이곳에서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근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는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계절별 맞춤형 물품 제공과 상담 지원 등을 진행, 실질적 도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취약가구 방역소독 지원

남원시 도동동 관계자는 지난 22일, 사회적기업 서남환경(대표 서덕교)은 도동동 관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 15가구에 방역소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1월가구 찾아가는 소분행정을 통해 오염되고 비위생적인 환경 등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을 발굴 지원하였다.

지원을 받은 어르신은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겠다며, 고맙다”고 전했다.

서덕교 대표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방역소독을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화물운송 산업 중심축, 더욱 견고한 역할 수행’

전북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새사육 준공식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새사육 준공식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양봉식이사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최근 전주시 덕진구 전미로37에 위치한 신축 사육에서 공제조합 신사육 준공식을 개최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따르면 이번 신사육 준공을 계기로 지역 화물운송 산업의 중심축으로서 더욱 견고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사육 준공식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전국화물협회 회장직 회장 신한춘 전 회장 심재선·김기승·김화일 부회장 등 전국 시도협회 이사장, 전북교통단체연합회 명영석 회장 등 교통단체 대표 및 임원진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화물협회는 1954년 6월 30일 전라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이후, 현재 620여 개 회원사와 9,830여 대의 화물차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신사육은 총 사업비 약 40억 원이 투입되어 송천동 2가 756-31 일대 부지 1,422㎡(약 430평)에 건축 연면적 1,572㎡(약 476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구조로 완공됐다.

건축 추진은 2020년 7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양봉식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최병선, 이동일, 윤운호, 이종인, 김성복, 유영규 위원과 고현택 전무이사를 간사로 구성한 ‘사육 이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했으며, 같은 해 12월 본 토지를 매입하며 본격적인 건축이 시작됐다.

양봉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협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신축 사육 준공이라는 결실을 맺는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며 “회원사와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파티마신협, 태평지역아동센터와 119 안전체험활동 진행

전주파티마신협(이사장 양준제)이 태평지역아동센터(센터장 정수영)와 전북 119안전체험관(임실군 이도리 소재)에서 2025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 5회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전국의 신협과 인근 아동복지시설의 결연을 통해 신협임직원인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가 되어 건전한 성장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 신협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단위 신협, 아동복지시설이 2016년부터 10년째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전주파티마신협과 태평지역아동센터의 어부바 멘토링 협약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2025년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은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28명의 아이들과 함께 △에코캠페인 △신협방문 및 경제교육 △문화체험활동 △119 안전체험관 견학 △다이나믹 체험 △노인복지관 방문 △경제골든벨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이번 8월 프로그램은 안전체험을 주제로 기획됐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전주파티마신협 멘토 2명과 태평지역아동센터 아동 28명, 아동센터 교사 6명이 참석했으며, △화재 탈출, △지진 대피, △심폐소생술 실습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으로 구성됐다. 신협 멘토 2명 또한 모형탐 탈출과 생존수영을 함께해 아이들의 용기를 북돋아 참여율을 높였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신규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

남원시가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력 향상과 실무 투입 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2025년 신규 임용 예정공무원 53명이 대상으로 남원시청, 스위트호텔, 남원시 일원에서 진행. 교육은 △조직적응교육 △실무역량강화교육 △현장중심 체험형교육으로 구성돼 새내기 공직자들이 남원시의 미래비전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경식 시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남원시 주요사업 현장 및 주요시설 견학 △공직자처 및 청렴교육 △시장장전과 주요업무 교육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교육 △민원응대교육 등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에 도움이 될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첫날은 시청에서 △공직자처와 청렴교육 △시장장전 및 주요사업 안내 △인사·복무제도 설명 등 공직에 필요한



기본 교육이 진행. 둘째 날은 스위트호텔에서 △민원응대 △공문서 작성 △기획력 및 보고서 작성 △소통역량 강화 교육 등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외국인 근로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2학기 개강

정읍시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2학기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8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정읍시청 별관 1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과정은 정읍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25명을 대상으로 하며, 1학기에 이어 기초 한국어 학습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과 직장에서의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정읍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목표로 한다.

이학수 시장은 “1학기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2학기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정읍시 가족센터’를 ‘1시군 1외국인 자원센터’로 지정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과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교육지원청-고창군, 교육행정실무협의회 개최

고창교육지원청은(교육장 한숙경) 고창군과 25일 2026년 교육협력 지원사업과 선동초등학교(폐교) 활용 방안 등 지역교육 현안 협의를 위해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 강민자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과 유정현 고창군청 인재양성과장을 비롯한 실무협의회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글로벌 역사문화체험 연수, 고창 드론축구단 운영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총 11개 교육협력 사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지난 2월말 폐교 된 선동초등학교에 연간 약 78인명 이 찾는 정보보탈 축제(4~5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 세부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고창교육지원청과 고창군은 지역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쌀 소비촉진 행사 진행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는 지난 25일 전북 부안군 부안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9회 추당전국곡악경연대회에 참석해 우리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농가주부모임회원들은 경연대회 참가자들과 관객들에게 우리쌀로 만든 주먹밥, 식혜 등을 나눠주며 ‘밥이 보약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김미자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맛도 영양도 좋은 든든한 우리쌀 음식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진안 백운면 이정규 씨,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군 백운면 남계리 주민 이정규(축산업)씨가 25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섭)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이정규 씨는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전춘섭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인재 양성에 꾸준히 관심갖고 장학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순창소방서,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 실시

순창소방서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변화하는 소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방공무원의 전술·기술 능력을 점검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평가 결과는 교육훈련 성적에도 반영돼 공정하고 체계적인 직무 역량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전술훈련 평가는 119안전센터와 지역대, 구조대 외근 근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훈련은 개인 기량보다는 팀 단위 전술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실제 현장 활동에서 요구되는 협동과 상황대처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기자